https://doi.org/10.5392/JKCA.2017.17.04.402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Influence of forgivenes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Communication

정문경
한세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

Moon-Kyeong Jeong(jmoonk509@hansei.ac.kr)

요약

본 연구는 기혼남녀의 용서수준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이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혼남녀의 용서가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총 300명의 기혼남녀들에게 Rye 용서수준 척도, 긍정적 의사소통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기혼남녀의 용서수준과 긍정적 의사소통, 긍정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용서수준과 결혼만족도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남녀의 용서는 긍정적 의사소통을 완전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남녀의 용서수준이 높아지면 긍정적 의사소통이 증가하고, 이를 매개로 결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용서 | 긍정적 의사소통 | 결혼만족 | 매개효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forg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en and women. For this purpose, a total of 300 married men and women were surveyed using the Rye forgiveness level, positive communication scale, and marital satisfaction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rs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forgiveness of married men and women, positive communication, positive communication, marital satisfaction, forg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Second, forgiveness of married men and women affects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fully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communication. Thi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forgiveness of married men and women, the higher the positive communication and the higher the marital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 keyword : | Forgiveness | Positive Communication | Marital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 |

접수일자 : 2017년 01월 16일
수정일자 : 2017년 02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2월 02일
교신저자 : 정문경, e-mail : jmoonk509@hansei.ac.kr

I. 서 론

부부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게 맺어진 동반자이며,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결혼관계는 심리적 고통이나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완충 역할을 하지만, 결혼생활에서의 갈등과 불안정은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 결혼관계는 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건강에 근간이 되므로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개입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결혼 및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결혼만족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왔다. '결혼만족'이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주관적 감정과 태도를 의미하며, 결혼생활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2]. 결혼생활에 만족을 느끼면 결혼을 지속시키려 하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현재의 결혼을 해체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3].

결혼만족은 무엇보다 부부 관계와 관련이 있다. 친밀한 관계는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보호와 지지의 환경을 제공하고, 애정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개인의 성장을 돕는다. 좋은 관계는 개인의 행복감과 의미 있는 연관이 있으며[4], 삶의 만족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5]. 이러한 관계의 특성이 부부관계에 적용이 되어, 만족스러운 결혼 관계는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행복에도 기여하며[6], 갈등을 적게 경험하고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안정된 가정경제[7],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와 동료애, 성적인 만족[8]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관계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면역체계의 약화와 신경학적인 질병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결혼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보다 만성적인 질병과 취약한 건강 문제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10]. 특히, 결혼한 부부와 비교할 때, 이혼한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 및 낮은 수준의 행복감, 그리고 심리적 문제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경험하며[11],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 높은 대인갈등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한편, 만족스러운 결혼관계는 한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건강에 있어서도 기초가 된다. 부모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 우울, 행동 문제들을 나타낸다[11]. Amato와 Keith(1991)는 이혼가정의 자녀와 결혼관계에 있는 가정의 자녀를 비교하는 연구들에 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혼가정의 자녀들에게서 여러 가지 행동문제가 발생하며, 이들이 낮은 사회적 유능성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였다[13]. 또한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았으나 건강하지 않은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의 자녀들에게서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 형제간 갈등, 심리적 부적응, 불안정 애착 등을 예언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감을 높여 생산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며, 나아가 문제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부부관계를 치료하고 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며 관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어떠한 요인이 결혼관계를 만족스럽게 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이해하고 규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14][15].

일반적으로 결혼관계의 만족에는 4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첫째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과정을 포함하는 상호작용, 둘째는 생애 사건, 셋째는 성격과 같은 배우자의 개인적인 특성, 넷째는 부부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다. 이러한 측면들이 부부관계를 만족스럽게 유지하며 갈등이 발생할 때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16]. 이 요인 중 생애 사건과 사회 문화적 맥락은 개입을 통한 변화가 쉽지 않으나 부부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 간 상호작용은 개입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상호작용으로서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용서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그 연관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에는 배우자의 행

동과 함께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상대배우자의 지각이 포함된다. 결혼만족은 배우자가 사랑과 공감, 자기 개방, 관계 유능성을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14], 이 모든 과정은 관계에서의 의사소통과 연관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의사소통에서 어떻게 전달되느냐하는 것이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상호작용을 계속해나갈지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은 부부간 상호작용에 있어 핵심적으로 연구가 되어 온 요인이라 할 수 있다[15]. Markman과 Hahweg(1993)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현재의 관계만족과의 상관 뿐만 아니라 결혼 10년간의 안정되고 높은 결혼만족도를 예언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7]. 이는 결혼관계를 오래 유지해온 부부들의 경우 긍정적이고 건강한 의사소통이 관계 갈등의 위험을 낮추고 결혼만족을 지속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15]. 건강한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거절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반박하지 않고, 눈 맞춤을 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때론 사과를 하는 의사소통을 말한다[19]. 반면 건강하지 않은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부정적인 감정을 비난과 방어, 모욕, 철회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20]. 결혼관계에서 부부의 의사소통은 결혼만족을 증진시키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21]. 따라서 건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의사소통 유형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22], 결혼만족도에 관한 독립변인으로서의 의사소통유형을 탐색하는데 그쳐[23], 건강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변인으로서 용서수준에 관심을 갖고 긍정적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혼관계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 화가 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은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24]. 용서란 분노[25], 갈등해결[26]과 같은 관계 측면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특성이다. 용서는 상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무관심하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서 출발한다. Fincham 등(2004)은 용서는 상처를 준 배우자에게 부정적으로 느낄 권리가 있고, 상처를 준 배우자가 동정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을 때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7]. 용서는 과거의 사건은 돌아보지 않고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용서는 보복하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27]. 또한 용서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순환을 멈추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동기를 유발한다. 즉, 용서는 고통스러운 관계 경험을 종식시키고, 화해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Worthington 등(2015)은 커플의 용서수준을 높이고 화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부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감소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용서수준을 높이는 것이 관계의 정서적인 양상을 변화시켜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28].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용서는 관계 지속과 부부간 상호작용 패턴, 특히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29].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여 모델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연구모형[그림 1]은 용서가 결혼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용서가 결혼만족도로 가는 직접경로를 포함한 부분매개모형이다. 경쟁모형[그림 2]는 용서가 결혼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설정한 완전매개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차이검증을 통해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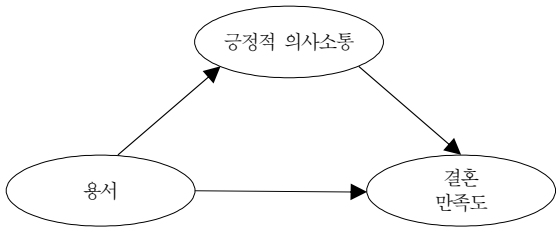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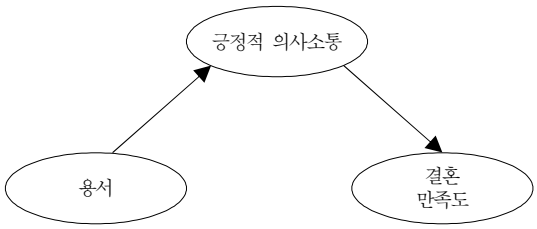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녀의 용서수준은 긍정적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기혼남녀의 용서수준,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의 기혼 남녀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연구 대상에게 접근이 가능한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교육한 후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을 실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동의하지 않으면 설문조사에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실시하였다. 설문에 답하는 시간은 평균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수거된 질문지 중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30부를 제외한 300부의 질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2.1 용서수준

기혼남녀의 용서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ye 등(2001)[30]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용서척도(Forgiveness Scale, FS)를 정성진(2011)[31]이 번역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적인 측면의 부재와 긍정적인 측면의 존재 2요인을 측정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12문항의 측정변수로 축소하였다. 긍정적인 측면을 묻는 문항의 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편할 것이다' 등이며,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문항의 예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 원한을 느낀다'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최소점수 12점에서 최대점수 60점이 응답의 범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51이었다.

2.2 긍정적 의사소통

긍정적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심혜선(2001)이 사용한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MCI)를 사용하였다[32]. 이 척도는 부부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묻는 9개의 문항과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11개 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18문항의 측정변수로 축소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내/남편이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내/남편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6점)의 Likert 6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최소점수 18점에서 최대점수 108점이 응답의 범위이다. 본 문항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11개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양식이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07이었다.

2.3 결혼만족도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는 QMI(Quality of Marriage Index, Norton, 1983)을 통해 측정하였다[33]. 이 척도는 Norton이 기존의 결혼만족 질문지들의 항목을 종합하여 5개의 평가적인 문항으로 개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Likert 7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34]. 문항의 예로는 '나와 아내/남편과의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다', '나는 나의 아내/남편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등이 있으며, 최소 점

수 5점에서 최대 점수 35점이 응답점수의 범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74이었다.

3. 자료분석

기혼남녀의 용서수준, 긍정적인 의사소통, 결혼만족의 관계를 규명하기위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내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용서수준, 긍정적인 의사소통, 결혼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매개모형을 구성하고 Amos 21.0의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의 적합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형 검증을 위해 카이자승 검증과 함께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해석기준이 비교적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 적합도 지수로 비표준부합치(CFI: Comparative Fit Index)를 제시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결합하여 측정한 터커-루이스지수(TLI: Tucker-Lewis Index)와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근사평균 오차제곱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제시하였다. CFI, TLI는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 RMSEA 지수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 .10보다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지 않다고 본다[35].

Ⅲ. 연구결과

1. 기초통계결과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용서,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값을 구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왜도는 3이상일 경우 정상성에서 벗어난다고 평가하며, 첨도는 8이상일 경우 정상성을 벗어난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대체적으로 기준에 합당한 왜도와 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표 1. 용서,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용서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
용서	1.000***		
긍정적 의사소통	.375***	1.000***	
결혼만족	.339***	.646***	1.000***
평균	3.613	4.178	5.390
표준편차	.615	.747	1.544
왜도	−.148	.502	−1.015
첨도	.094	.029	.502

***p<.001

2. 용서,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도간의 구조모형 검증

2.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측정변수의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잠재변수는 적절하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검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용서,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측정모형의 추정치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잠재변수 → 관측변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S.E.)	검정통계량 (C.R.)	
용서수준 → 용서수준1	.843			
용서수준 → 용서수준2	.789	.094	9.783	***
용서수준 → 용서수준3	.346	.083	5.787	***
부부의사소통 → 부부의사소통1	.838			
부부의사소통 → 부부의사소통2	.860	.049	19.152	***
부부의사소통 → 부부의사소통3	.805	.060	17.532	***
부부의사소통 → 부부의사소통4	.361	.073	6.699	***
부부의사소통 → 부부의사소통5	.429	.068	8.065	***
부부의사소통 → 부부의사소통6	.455	.068	8.626	***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1	.956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2	.973	.021	46.173	***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3	.976	.022	47.143	***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4	.906	.030	33.607	***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5	.889	.033	31.369	***

***p<.001

2.2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용서가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적 관계를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을 통해 비교 검증하고, 더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여 선택된 모형의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x^2/[df]/p	TLI	CFI	RMSEA
136.629 / [69] / .000	.980	.985	.052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C.R.
용서 → 긍정적 의사소통	.557	.444	.083	6.740***
용서 → 결혼만족	.127	.060	.098	1.303
긍정적 의사소통 → 결혼만족	1.302	.770	.089	14.640***

***p<.001

[표 3]에서 보듯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980, CFI=.985, RMSEA=.052 로 연구모형은 적합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쟁모형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TLI= .980, CFI=985, RMSEA=.052 로 연구모형과 거의 유사하게 적합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표 5.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x^2/[df]/p	TLI	CFI	RMSEA
138.301 / [70] / .000	.980	.985	.052

표 6. 매개모형 검증

	x^2/[df]/p	TLI	CFI	RMSEA
연구모형	136.629 / [69] / .000	.980	.985	.052
경쟁모형	138.301 / [70] / .000	.980	.985	.052
모형 비교	1.672 / [1] / .000	.000	.000	.000

[표 6]에 따르면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은 모두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했을 때 경쟁모형은 연구모형에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두 모형 간 위계적 x^2검증을 실시했을 때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triangle x^2$=1.672, $\triangle$ *df=1,* p<.134), 용서에서 결혼만족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간명모형인 경쟁모형을 선택하였다. 이는 연구모형에 비해 용서가 결혼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를 제외한 경쟁모형이 용서,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하는 모형임을 보여준다. 즉, 직접경로를 제외하였을 때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므로 설명력이 높은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직접효과의 크기 및 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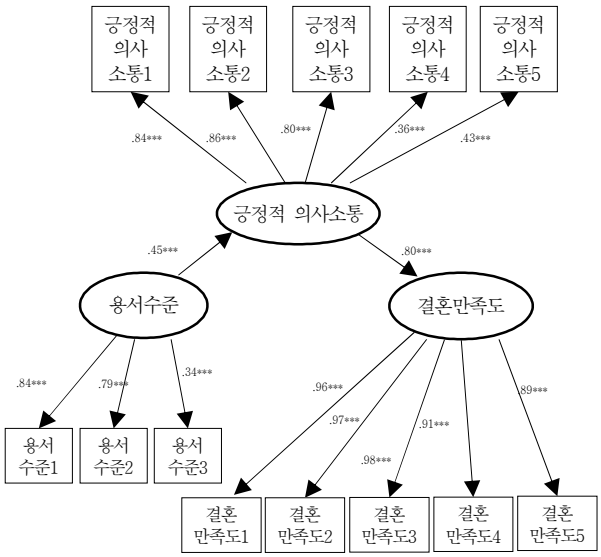
표 7. 경쟁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C.R.
용서 → 긍정적 의사소통	.572	.455	.082	6.949***
긍정적 의사소통 → 결혼만족	1.354	.800	.082	16.609***

***p< .001

구조모형분석 결과인 [표 7]에 따르면 첫째, 용서는 긍정적 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β= .45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서수준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긍정적 의사소통은 결혼만족에 정적인 영향(β= .80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p< .001

그림 3. 경쟁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요인부하량, 설명오차 결과

표 8. 각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용서	긍정적 의사소통	.455***		.455***
	결혼만족		.364***	.364***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	.800***		.800***

[표 9]에서는 긍정적 의사소통이 용서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용서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 (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신뢰구간 95%에서 10,000번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36]. 부트스트랩 실시 결과 용서는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64, 95% Bias-corrected CI=.251-.462). 이는 용서 수준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더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높은 결혼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경로	β	S.E	BC 95% CI
용서 → 긍정적 의사소통 → 결혼만족	.364	.054	.251-.462

Ⅳ.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기혼남녀의 용서수준, 긍정적 의사소통, 결혼만족의 구조적 관계가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300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용서수준이 긍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혼남녀의 용서수준과 긍정적 의사소통, 긍정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용서수준과 결혼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남녀의 용서는 긍정적 의사소통을 완전매개로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남녀의 용서수준과 긍정적 의사소통, 긍정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용서수준과 결혼만족도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서수준이 높으면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게 되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용서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기혼남녀의 용서수준은 긍정적 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용서수준 향상을 통해 긍정적 의사소통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은 결혼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이 잘못 이루어져 오해가 생기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 좌절과 분노를 갖게 된다. 반대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관계의 어려움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부관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만 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부 갈등을 유발하여 관계만족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고, 부부 갈등을 악화시키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배우자의 일상적 부부호응도, 배우자의 조망수용능력, 부정적 해석 등인 것을 발견하였다[37]. 한편, Klein 등은 정서조절이 어렵고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의사소통을 적대적인 비난으로 지각을 하며 인지적 재평가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조

절을 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비난을 덜 지각하고 좀 더 건설적인 비평으로 지각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38].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용서수준은 그러한 개인변인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용서수준이 의사소통을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변인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하여 용서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은 보복 동기를 낮추고, 비효율적인 논쟁을 덜 하려하며, 좀 더 호의적인 방식으로 배우자와 의사소통을 하고자 한다는 Fincham(2004)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27]. 또한, 이 결과는 커플의 용서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증가하게 된 Worthington 등(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 한다[28].

셋째, 기혼남녀의 긍정적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간 상호작용, 생애사건, 배우자의 개인적인 특성 및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1]. 이러한 요인 중 부부간 상호작용은 무엇보다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 공감, 자기 개방, 관계 유능성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에 대한 만족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면 관계는 만족스럽고 지속이 되지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갈등은 부부관계를 위태롭게 하며 만족도를 저하시키는데 이러한 갈등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또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갈등에 있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자들은 갈등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이나, 목표, 기대와 같은 성격차이, 또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나 다른 구조적인 문제와 달리 의사소통은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다고 본다[39]. 이것이 부부치료자들이 부부의 의사소통 개선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부부치료자들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며,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결정적임을 주목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결혼만족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기혼남녀의 용서수준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긍정적 의사소통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혼남녀의 용서수준은 결혼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매개로 결혼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에 대한 선행연구들[27]은 용서가 결혼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관계를 깨뜨린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한 분노가 갈등을 증폭시키며, 이러한 갈등이 결혼만족에 저해가 되지만 용서는 보복할 동기를 낮추고,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려하기 때문이다. 즉, 용서는 부정적인 갈등전략을 감소시켜 부부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순환되는 것을 방지하여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용서가 결혼 만족과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용서가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가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즉, 용서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위해서는 부정적인 갈등전략의 감소와 같은 매개요인의 역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McNulty(2008)도 이런 맥락에서 배우자의 관계파기 행동은 묵인하고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배우자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동기와 노력을 할 때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40]. Braithwaite 등(2011)도 기존의 연구들이 용서가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용서와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자기조절과 부정적인 갈등전략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41] 본 연구에서 밝혀진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용서와 결혼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 하나의 매개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관계 연구와 개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부부의 용서수준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용서

수준이 높아지면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자기 조절을 더 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공격, 배신, 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갈등전략을 감소시켜 관계 손상을 방지하고 생산적인 관계행동을 고양시키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이는 결혼만족에 이르는 경로를 순조롭게 한다. 따라서 부부의 용서수준을 높이는 개입은 가족과 사회의 안정에 근간이 되는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용서를 통해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개 변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었다. 매개변인은 독립변인과 함께 개입과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용서수준의 향상이 결혼만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와 아울러 의사소통과 같은 매개변인이 관심을 기울여야할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이 성격 5요인과 같은 성격요인, 정서지능, 자기 개방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42]. 용서외에 다른 개인적 특성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은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소통이 결혼만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용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의사소통의 개선을 위한 개입전략이 이루어질 때 부부는 관계에서 만족을 경험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기혼남녀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 기초하였다는 것이다. 자기보고식 조사는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반영되어 실제 수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관찰이나 실험연구와 같은 객관적 연구를 통해 한계를 보완하기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의 300명의 기혼남녀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의 성별, 학력, 나이, 결혼연한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일반화를 위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기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용서수준과 결혼만족의 매개변인으로 긍정적 의사소통 변인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용서수준과 결혼만족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변인은 다양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용서수준과 결혼만족을 매개하는 상호작용변인을 규명하여 결혼만족의 향상을 위한 제반 연구에 기여하기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1] B. R. Karney and T. N. Bradbury,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A review of theory, methods,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118, No.1, p.3, 1995.

[2] 김희진,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4호, pp.877-906, 2005.

[3] L. C. Burpee and E. J. Langer, “Mindful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Vol.12, No.1, pp.43-51, 2005.

[4] C. M. K. Dush and P. R. Amato, “Consequences of relationship status and quality for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22, No.5, pp.607-627, 2005.

[5] G. K. Rhoades, C. M. Kamp Dush, D. C. Atkins, S. M. Stanley, and H. J. Markman, “Breaking up is hard to do: the impact of unmarried relationship dissolution on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25, No.3, p.366, 2011.

[6] P. R. Amato,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2, pp.1269-1287, 2000.

[7] A. Thomas and L. Sawhill, “For love or money? The impact of family structure on family

income," Marriage and Child Well Being, Vol.15, pp.57-74, 2005.

[8] J. Reardon-Anderson, M. Stagner, J. Macomber, and J. Murray, *Systematic Review of the Impact of Marriage and Relationship Programs,* Washington, DC: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05.

[9] J. K. Kiecolt-Glaser and T. L. Newton, "Marriage and health: his and hers," Psychological bulletin, Vol.127, No.4, p.472, 2001.

[10] R. A. Hunt, L. Hof, and R. DeMaria, *Marriage enrichment: Preparation, mentoring, and outreach*, Psychology Press, 1999.

[11] J. Gottman,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Psychology Press, 2014.

[12] F. D. Fincham and S. R. Beach, "Conflict in marriage: Implications for working with coupl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0, No.1, pp.47-77, 1999.

[13] P. R. Amato and B. Keith, "Consequences of parental divorce for children's well-being: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110, pp.26-46, 1991.

[14] B. S. Meeks, S. S. Hendrick, and C. Hendrick, "Communication, lov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15, No.6, pp.755-773, 1998.

[15] W. K. Halford, H. J. Markman, G. H. Kling, and S. M. Stanley, "Best practice in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29, No.3, pp.385-406, 2003.

[16] W. K. Halford, H. J. Markman, and S. Stanley, "Strengthening couples's relationships with education: Social policy and public health perspectiv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22, No.3, pp.497-505, 2008.

[17] H. J. Markman and K. Hahlweg, "The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marital distres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13 pp.29-43, 1993.

[18] S. Jekielek, J. Bronte-Tinkew, L. Guzman, S. Ryan, and Z. Redd, *What is Healthy Marriage?: Defining the Concept,* Washington, DC: Child Trends, 2004.

[19] S. M. Stanley, H. J. Markman, and S. W. Whitton,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mmitment: Insights on the foundations of relationship success from a national survey," Family process, Vol.41, No.4, pp.659-675, 2002.

[20] J. M. Lewis, L. Johnson-Reitz, and J. S. Wallerstein, "Communication in divorced and single-parent families," In A. L. Vangelisti(Ed.) Handbook of family communication, pp.197-214, 2004.

[21] P. Noller and M. A. Fitzpatrick,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2, No.4, pp.832-843, 1990.

[22] 이정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91

[23] 고현선, "부부의 갈등대처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4호, pp.71-83, 1995.

[24] D. L. Fenell, "Characteristics of long-term first marriage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Vol.15, No.4, pp.446-460, 1993.

[25] S. R. Freedman and R. D. Enright,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4, No.5, p.983, 1993.

[26] E. L. Worthington Jr. and N. G. Wade, "The psychology of unforgiveness and forgivenes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18, No.4, pp.385-418, 1999.

[27] F. D. Fincham, S. R. H. Beach, and J. Davila, “Forg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in 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18, No.1, pp.72-81, 2004.

[28] E. L. Worthington, B. J. Griffin, and J. W. Berry, "Forgiveness-Reconciliation and Communication-Conflict-Resolution Interventions Versus Retested Controls in Early Married Coup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62, No.1, pp.14-27, 2015.

[29] M. E. McCllough and C. V. Witvliet, “The psychology of forgivenes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Vol.2, pp.446-455, 2002.

[30] M. S. Rye, D. M. Loiacono, C. D. Folck, B. T. Olszewski, T. A. Heim, and B. P. Madia, “Evalu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wo forgiveness scales,” Current Psychology: Developmental·Learning·Personality·Social, Vol.20, pp.260-277, 2001.

[31] 정성진, *용서과정 척도 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2] M. J. Bienvenu,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Vol.19, No.1, pp.26-31, 1970.

[33] R. Norton,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45, No.1, pp.141-151, 1983.

[34] 김민희, 민경환, “중년기 부부의 애착과 결혼만족: 애착유형과 결혼만족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7권, 제1호, pp.213-233, 2007.

[35] 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36] P. E. Shrout and N. Bolger,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7, pp.422-445, 2002.

[37] 권윤아, 김득성,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46권, 제6호, pp.110-113, 2008.

[38] R. Sarah, K. D. Renshaw, and T. W. Curby, “Emotion Regulation and Perceptions of Hostile and Constructive Criticism in Romantic Relationships,” Behavior Therapy, Vol.47, Issue 2, pp.143-154, 2016.

[39] A. Sillars, D. J. Canary, and M. Tafoya, “Communication, conflict, and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In A. L. Vangelisti(Ed.), *Handbook of family communica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pp.413-446.

[40] J. K. McNulty, “Forgiveness in marriage: Putting the benefits into contex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22, pp.171-175, 2008.

[41] S. R. Braithwaite, E. A. Selby, and F. D. Fincham, “Forgiven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25, No.4, pp.551-559, 2011.

[42] S. E. Mackay, "Communication within romantic relationships," at http://scholar.uwindsor.ca/uwilldiscover, 2016.

저 자 소 개

정 문 경(Moon-Kyeong Jeong) 정회원

- 1988년 2월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2년 8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상담학과 연구전담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 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긍정심리학